**예언 사역의 필요성(3) /릭 조이너**

****

† 예언 사역의 필요성(3)

예언자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를 바로잡는 일이 필요한 경우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몸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나 이를 바로 잡겠다고 나서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나는 진정한 예언자 사역을 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목사들에 의해 훨씬 나쁜 실수들이 저질러지는 것을 듣고 보아 왔습니다.

아마도 나는 그런 목사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예들을 모아 놓은 책을 여러 권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사들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일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아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언자 사역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눈이 손에게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전 12:21)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들 중 하나인 다윗 왕은

때때로 다른 예언자들에게 자문을 청했던 지혜와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생애 동안 예언자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성숙 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훌륭하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개인적인 지도를 위해 다른 예언자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들 자신의 개인적 문제들에 대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끔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삶의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지켜주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보다 큰 영적 권위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릭 조이너가 지은 “21세기를 위한 예언적 비전” 중에서...)